

# 한국, 석유 소비효율 OECD “꼴찌”

석유협회, 2004년 GDP 1억달러에 1일 335배럴 소비 ... 소비량 7위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석유 소비효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가 최근 세계은행의 2004년 GDP 현황과 BP(British Petroleum)의 석유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04년 GDP(국내총생산) 1억달러당 석유 소비량은 1일 335배럴로 30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004년 한국의 GDP는 6797억달러로 세계 11위이며, 1일 석유 소비량은 228만배럴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또 OECD 국가 평균인 149배럴에 비해서는 100% 이상 높았고 특히 전세계 석유 수요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 소비대국인 미국(176배럴)에 비해서도 100% 가량 많아 국내 석유 소비습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스위스가 1일 72배럴로 전세계에서 석유 소비효율이 가장 높았고 덴마크(78배럴)와 영국(82배럴)이 2위,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일 114배럴로 수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405배럴을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5/09/29>